

순창 조합장 투표장 참사...트럭 덮쳐 20명 사상

투표 기다리던 유권자들 날벼락
쿵 소리나며 '살려달라' 아비규환
3명 사망·5명 중상·12명 부상
대부분 고령...사망자 늘어날 듯
운전자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착각'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를 기다리던 조합원들이 8일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트럭에 치여 바닥에 쓰러져 있다.

〈독자 최형민씨 제공〉

“쿵” 소리와 동시에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려 한순간 아비규환 속에 전경이 난 줄 알았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인 8일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에 있던 조합원들은 악몽을 겪었다.

조합장 선거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조합원들을 1t 트럭이 덮쳐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8일 순창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 현장 주차장에서 A(74)씨가 운전하던 트럭이 투표를 기다리던 조합원 20명을 덮쳐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이중 3명이 숨졌지만 중상자 5명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자들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50대 3명, 60대 4명, 70대 10명, 80대 3명이다.

당시 현장에는 투표를 위해 조합원들이 몰려 줄이 ‘ㄱ’자 아닌 ‘ㄷ’자 형태로 굽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직원 3명이 투표소 내·외부에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었고, 경찰은 투표장 바깥에서 순찰과 도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브리핑에서 “A씨가 이날 투표를 마치고 투표장 옆에 있던 차고에서 비료를 트럭에 싣고, 계산을 위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착각했다”며 “귀신에 씌였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최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병력도 없으며,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방문한 구림농협 투표 현장에는 사고가 난지 수시간이 지났지만 참혹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투표장 입구에 설치돼있던 지붕의 철제 기둥은 부서졌고 유리창은 깨진 채 지붕은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다.

투표장 입구에 설치돼 있던 책상은 철제 다리가 휘고 부서져있어, 트럭이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곳곳에 남아있는 찌꺼기와 조합원들이 입고 있던 오리털들이 흩어져 있었다.

경찰과 주민들은 하나같이 “사고 당시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며 몸서리쳤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림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차량 뒤로 사람 수십명이 피를 흘리며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차량이 멈춘 곳 밑에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깔려 있었다”며 “차 밑에서 사람을 꺼내 소방대와 함께 CPR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10여 분 전에 투표를 마친 최형민(45)씨는 “사고 당시 트럭과 가까운 쪽에 있던 사람들보다 트럭과 멀리 있던 사람 중에 중상자가 많았다”며 “트럭이 쇠기둥과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 어른들이 끼이고, 차에 깔리면서 부상자가 많아진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가 나기 5분여 전에 투표를 마치고 나와 변을 피했다는 강영근(80)씨는 “투표를 마치고 근처 슈퍼에 들어갔다가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나와보니 사람들이 사방으로 쓰러져있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며 “6·25이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이 죽고 다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다”고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주민 황모씨(76)씨도 “투표를 마치고 근처에 있다 큰 소리가 나와보니, 사람들이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다”며 “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다치니 인생이 참 허망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숨진 조합원의 안타까운 사연도 들려왔다. 전주에 살던 최모씨(75)는 이날 조합장 투표를 위해 오전 일찍 투표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경찰 관계자는 “A씨가 페달을 헛갈려 잘못 밟은 이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 투입 계엄군 “5·18 피해자 찾아 사죄하고 싶다”

“대검으로 영정이 찢렸다” 고백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를 통해 고백·사죄를 한 데 이어 자기가 찢른 5·18 피해자를 찾아 사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8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 따르면 5·18 당시 제3공수여단 중사로 진압 작전에 참여한 A씨가 최근 5·18 단체에 피해자를 찾아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A씨는 1980년 5월 20일 저녁 광주역 인근에서 진압 작전을 할 때 도망가는 시위대의 영정을 대검으로 찢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난해 5·18 조사위의 주선으로 오월 어머니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사죄 의사를 밝혔다.

5·18 부상자회 관계자는 “회원들을 상대로 A씨에게 피해를 본 당사자를 수소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나타나면 공식적인 사과와 화해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5·18 단체는 오는 14일 A씨를 포함해 계엄군 출신 공수부대원을 광주로 초청해 고백과 증언을 하는 행사를 추진 중이다.

특히 A씨는 5월 항쟁 당시 시위대로 활동한 친동생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기구한 사연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A씨는 “제 동생은 시위대로 참여했다가 특전사 동료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해 지금은 치아가 없다”며 “저는 제대로 고향에서 손가락 질 받아 다른 지역으로 쫓기듯 옮겨가 숨죽여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도 건강이 나빠지는 등 5·18 이후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조합장 선거 115명 수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인 8일 현재 경찰의 수사선상에 놓인 광주·전남지역 조합장 선거 관련자만 100명을 넘어섰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80건 11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거 1주일 전만 하더라도 광주·전남에서 37건 57명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선거 막판 각종 고발이 이어지고, 금품수수 사례가 적발되면서 수사 대상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광주지역에서는 19건에 26명이 수사 대상으로 금품수수가 16건(21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2건(4명), 기타 1건(1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관련 1건 3명(1명 송차·2명 불송차)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18건(23명)을 수사 중이다.

조합이 더 많은 전남에서는 61건에 89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금품제공 41건(60명), 허위사실 공표 10건(14명), 사전선거운동 3건(6명), 기타 7건(9명) 등이다. 이 중 2건(2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3건(5명)은 혐의없음 중결 처리해 남은 사건은 56건(82명)이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의 경우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증금 떼먹고 깡통전세 173채...광양 임대업자 구속

103억원대 사기 행각

광양시에서 자신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아파트를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놓는 일명 ‘무자본 깡투자’로 103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A씨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만 144채로 피해금액은 82억원에 이른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 아파트 173채를 매매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임대차 계

약을 맺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03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점을 이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저가형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주택가격의 30%)이 설정돼 있는 노후(20년)화 된 아파트를 매입했다.

함께 구속된 B씨는 임차인 소개와 계약 알선 등 조력자 노릇을 하며 입주할 임차인을 끌어들이었다. 이들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만 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한 121명은 이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총

68억원을 변제받았다. 전세금보다 하락한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한 세대는 36채(보증보험 가입 15채, 미가입 21채)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맞아 광양에 있는 한 노후 아파트단지에서 수십 채가 한꺼번에 경매 매물로 나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나머지 아파트도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시세 차이로 돈을 벌 목적이었지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떼먹을 생각은 없었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현금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h3>전원주택 (1채) → 7,000만</h3> <p>(토지 분양 중) 장성댐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유흥가능 (전용 100평) 																
<p>▶ 경매 물건 추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td> </tr> <tr> <td></td> <td>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td> <td>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r> <td></td> <td>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td> </tr> <tr> <td></td> <td>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td> <td>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td> </tr> <tr> <td></td> <td>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td> </tr> <tr> <td></td> <td>정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able>	광주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정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p>(보3천, 월수익 380만)</p>
광주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정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p>010-2614-9801</p>	<p>010-6670-9800</p>																	